

4》 강의평가 실효성 제고



5》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 ⑤



2017학년도 2학기 수강희망과목 담기 안내

유형 : (1)희망과목 담기 (2)예비과목 담기
실시기간 : 1차 2017. 06. 19(월) 10:00 ~ 06. 29(목) 17:00
2차 2017. 07. 19(수) 10:00 ~ 07. 21(금) 17:00
참여대상 : 서울·국제캠퍼스 재학생 및 복학 예정 휴학생
대상강좌 : 2017학년도 2학기 개설강좌

완공까지 한달 기준 건물은?

SPACE21 공간 조정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서울】 SPACE21 건물 신축에 따라 이전하는 간호과학대학·이과대학·한의대학이 사용하던 기준 건물에 대한 사용 계획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SPACE21 완공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기준 건물 사용을 원하는 단과대는 많지만, 아직 본부에서는 공식적인 계획을 밝힌 바 없다.

신축 건물로 인해 비는 공간은 약 5,000평이다. 당장 9월부터 5,000평이 공실이 되지만,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공간 부족을 호소하던 여러 단과대학은 적어도 올해까지 여전히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라 단과대가 기준 건물을 원하지만, 정작 학교 측과 의미 있는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과대학은 의과대학뿐이다. 의과대학 행정실 측은 “이미 간호과학대학을 사용하기로 종장실 결재까지 받은 상황”이라며 “2학기에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 내년 1학기부터 강의실과 연구실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문과대학 행정실 측은 “본부에서 먼저 제안한 논의 테이블은 없다”며 “공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끝에 6월 중순 문과대학 교수와 학교 측 관계자들이 함께 빈 공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경대학 행정실은 “학장은 ‘기준 공간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전무하고,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만 난무하다’”며 “기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당장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학생회 권예하(언론정보학 2010) 회장은 “기준 공간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전무하고,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만 난무하다”며 “기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당장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기준 건물 사용에 대한 계획이 나올 시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총무관리처 정진봉 처장은 “이과대학의 경우 아직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해 복원된 ‘청년’

1989년에 그려진 벽화 ‘청년’은 청년들의 저항정신을 상징한다. ‘청년’은 수도권 대학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민중벽화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을 겸해 지난 9일 이뤄진 ‘청년’ 복원 기념식에서 김준기 제주도립미술관 관장은 “경희대 벽화는 꽉꽉한 현실 앞에서 고노하는 21세기 청년들에게 저항정신의 회복을 권면하고 있다”고 평했다. (글=김지담 기자, 사진= 이수형 기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처우개선” VS “무리한 요구”

중핵교과 교수 처우개선 논란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지난 7일 학교 곳곳에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 중핵교과 교수회의의 명의로 대자보가 붙었다. “저희는 후마의 중핵교과 소속 객원교수·시간 강사들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대자보는 후마에서 중핵교과 과목 ‘인간의 가치 탐색’과 ‘우리가 사는 세계’를 가르치는 교수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처우개선을 조인원 총장에게 직접 요구했다. 해당

대자보에 학교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남기며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 관련기사 3면)

중핵교과 교수회의의 요구사항은 크게 4가지로 ▲후마 출범 이후 7년간 유지돼온 교수임금 인상 ▲시간강사들의 객원교수로의 점진적 신분전환 ▲객원교수 전원의 신분 안정화 ▲서울캠퍼스(서울캠)와 동일 비율로 국제캠퍼스(국제캠) 객원교수들의 비정년전임으로의 즉각적인 신분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대자보 게시 이전인 2일에는 교수 회의가 후마 대학장 직무대리인 서울캠 부총장실을 방문해 항의성명

을 제출하기도 했다.

후마는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역할과 목적을 확인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교양교육을 위해 지난 2009년 말부터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논의를 시작해 2011년 3월 최종 설립됐다. 이후 후마는 우리대학의 상징이 되면서 인문학 교육 중심대학 이미지 강화에 일조했으며 전공과 취업만을 중시하던 기존 대학의 풍토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체 학부생의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후마는 일반 단과대학과는 다르게 객원교수와 시간강사

의 비중이 높다. 교수회의는 “후마를 출범시키는 과정부터 참여했던 객원교수와 시간강사들이 지금까지 7년간 근무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동안 내적 가치를 인정받은 교강사들을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캠 후마 유정완 학장은 “애초에 후마 객원교수들은 다른 단과대학의 교수들에 비해 좋은 여건에서 출발했다”며 “전임교원으로의 전환도 이뤄지는 상황에서의 무리한 요구는 형평성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알림

이번 호가 2017학년도 1학기 종간호입니다

방증에도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카카오톡 엘로 ID : 대학주보
- 트위터 : @khunes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교수 칼럼

교육적폐 청산과 대학의 미래
이기라(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7면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 장비와 자금 상의 문제는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인지도가 낮고 신상을 노출해야하는 형식 때문에 인터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들은 한국어 인터뷰를 영어로도 번역해 제공하고 있다. 매번 사진촬영 및 인터뷰를 진행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인터뷰를 영어로 번역한 후 게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박 디렉터는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 역시 우리학교의 구성원이라 생각했다”며 “외국인 학생들의 소중한 삶도 담아내고자 영어 인터뷰를 함께 게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시작한 인터뷰
지친 감정을 회복하고
일상의 특별함을 담다

앞으로의 계획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박 디렉터는 ‘Humans of’ 콘텐츠를 운영하는 다른 학교들을 소개하며 “페이스북에만 게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전시회를 열 계획이고 인터뷰한 내용들을 사진과 함께 모아 책을 출간해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국제캠퍼스에서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지만 다음 학기부터 서울캠퍼스까지 확장할 계획인 Humans of KU. “학교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의 일상이 라고 해도 모두 특별하고 그 일상의 특별함을 담고자 한다”는 박 군과 이들의 열정을 응원해 본다.



시선

사설

6월 항쟁 30년, 청년 벽화 28년
민주주의를 다시 고민하라

6월 9일, 서울캠퍼스 문과대학 벽에 그려진 '청년' 벽화 복원 사업이 완료됐다. 낡고 흐릿했던 벽화는 선명한 빛깔을 찾았다. '팔뚝이'라는 이름이 더 친근한 청년 벽화는 지난 세월 민주화 운동의 흔적이다. 술한 대학생들이 자신의 배움터에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그림을 그렸다.

과거의 대학은 그랬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불꽃이 타오르는 가운데 건물에 벽화를 그리고 목소리를 내며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장이었다. 대학생은 거리로 나가 최루탄에 맞섰다.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이름을 델 수조차 없는 많은 이들이 6월에 흘린 피땀은 민주주의가 되어 이 땅을 적셨다. 그 결과로 군부 독재는 물러나고 제도적으로나마 민주주의가 이 땅에 찾았던 것이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당연한 것이 됐다. 민주주의는 우리 삶을 결정하는 자연스러운 질서가 됐다. 사람들은 당연한 듯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고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벽화의 빛도 바래갔다. 빛바랜 벽화는 학내의 풍경으로 박제되고 그 의미를 되짚는 이들은 드물어졌다. '팔뚝이'에 담겼던 시대의 의미를 전하는 이는 사라졌고 심지어는 '빨갱이'와 같은 그릇된 의미로 와전되기도 했다. 지난세기 말에는 문리대 외벽공사를 진행하며 철거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청년 벽화는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동안 다른 대학에 그려졌던 벽화들은 항쟁이 사라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건물에 자리를 내줬다.

그동안 대학도 빛을 바꿨다. 진리를 탐구한다는 학문 기관은 학생의 취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가 쥐고 흔드는 지원 사업에 정책을 바꿔가며 일회 일비해야 했다.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기 급급한 사이, 사회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은 사치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됐다.

시대가 다시 변했다. 시민은 촛불을 들었고 광장에 몰려가 지난 10년간 얹눌렸던 목소리를 터트렸다. 참여의 의미가 되살아났고 변화를 경험했다. 경험을 통한 학습의 효과는 강렬했다. 대표자를 앓았는데 끝나지 않았다. 시민들은 정보를 찾고 위정자를 감시하며 민주주의를 실천했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지 30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한 2017년의 6월에 청년벽화가 색을 찾았다. 20여일에 걸친 복원작업의 결과다. 동문, 학생, 직원이 주축이 되 6월 민주항쟁 30년의 의미를 다시 칠했다. 선명해진 벽화를 바라보며, 30년 전의 6월을 돌아보며 다시금 대학에 대해 생각한다. 작금 우리사회의 대학은 지난 겨울 과외수업을 통해 성숙해진 민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가.

당장 술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늘도 비좁은 공간에 부대끼는 이들이 많지만 공간 이전 계획은 안개 속이다. 부조리를 자정해 나가는 학생회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관행과 관습으로 운영되는 학생회도 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아는 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과정은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청년이 지켜본 30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세월호 막말' 파문 일어
해당 강사 공개 사과

미디어 여론동향 2017. 5. 29 ~ 6. 11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서울캠) 전공수업 강사가 강의 도중 "세월호 사건에서 아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은 카카오톡 때문"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논란이 됐다.(1보)'세월호 막말 논란' 강사 수업 녹취본 공개/대학주보 온라인, 2017.5.30)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매체는 우리학교 강사가 4월 13일 수업 중 "세월호 학생들이 탈출할 생각은 안하고 카카오톡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급이 알려지며 "세월호 희생자의 피해 원인을 개인의 행동에서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과 '시의적으로 민감한 이슈일 뿐 수업 내용상 허용 가능한 수준이다'는 관점



이 주의 주제 - '벽从中에서 문명까지'의 미래

벽문, 변화는 있되 변함은 없기를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지난 한 학기 동안 '벽从中에서 문명까지(벽문) 짚어보기' 연재를 통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벽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짚었다. 그 내용은 벽문의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보니 연재된 기사만을 읽다보면 벽문이 충분한 준비 없이 세상에 나온 미숙아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 것인 사실이다.

그러나 취재를 통해 접한 벽문은 '자라나는 아이'였다. 취재를 거듭하며 현행 벽문의 많은 부분은 처음부터 학생들을 위해 설계되고 준비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벽문이 시작되고 이제 겨우 세 학기가 지났을 뿐이지만 그간 꾸준히 문제를 보완하고 개선하며 자라나고 있었다.

처음으로 도입된 과학중핵이라 기대가 커던 만큼 실망도 큰 것 같았다. 자라나는 아이가 완벽하지 않듯,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벽문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지속적으로 해당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금 당장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벽문 자체를 폐지하거나 핵심 시스템을 버리는 것은 오히려 벽문의 도입 취지를 저버리는 일이다.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를 함양할 기회를 잊어야 하는 것과 다름없다.

벽문을 개선하고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학본부의 지원'이다. 취재 중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 부족'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는 관계자가 많았다. 그들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지만 현실의 벽이 벽문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학교가 내놓은 '자랑스러운' 중핵교과이며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지원의 부족으로 벽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지금의 상황은 아이러니다.

지원 부족은 학생들의 불만과도 직결된다. 학생들이 제기하는 불만의 대부분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부차원의 지원이 미흡하니 미봉책으로 '행정편의적인 방법'을 꺼내게 된다. 자연의 이해와 과학적 사고를 증진시킨다는 벽문의 본래 취지는 점차 빛이 바랜다. 가치를 잃어가는 벽문을 듣는 학생들은 이를 수강해야 할 필요성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벽문을 귀찮지만 들어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치부하지 말았으면 한다. 과학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과학의 관점을 배우고 인문학과의 접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정 어린 시각으로 함께 해줄 것을 희망한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벽문은 앞으로도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며 변화할 것이다. 막상 다음 학기만 해도 많은 부분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한 학기에 걸쳐 달려온 '벽从中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 연재를 마치며, 변화는 있되 변함은 없기를.

이 부딪히고 있다.

이후 지난 1일 수업에서 해당 강사가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했다.(2보)"과제 의도 제대로 전달 못한 잘못 인정한다"/대학주보 온라인, 2017.6.1) 그는 "제도와 시스템 등 여러 측면이 있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 한계도 있다고 생각해 이번 과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제의 의미와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잘못을 인정했다. 강사는 학교 측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전달했지만 학교 측은 이미 학기 말을 앞두고 있고 수업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남은 수업을 마쳐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학과는 지난달 29일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쳤으며, 오는 14일 학과장이 수강생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대나무숲에는 한 학과의 공급 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저희는 학과 공급의 행방을 모릅니다'라는 글(#경희_22181, 2017.6.1)의 글쓴이는 '3월, 과장을 주문했고 많이 늦어져 5월 초에 받았다. 이에 대한 보상금이 있을 거라는 과대의 공지가 있었는데 이후 과대의 말이 맞지 않는다는'고 썼

다. 글쓴이는 '과대가 공급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하지 않고 금액을 속이며 계속 말을 바꿨다'며 '업체에서 돌려받은 지역 보상금 35만 원의 행방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대화방 캡처도 첨부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50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글에 학생들은 '안 들켰으면 뒷주머니 찼거나 축제 때 본인이 선심 쓰듯 썼겠지?'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편 해당 과대는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사퇴했다.

정연모(전자공학) 교수는 '하수도 탐색을 위한 드론 제어 시스템 및 방법' 특허를 출원했다.(드론이 하수도를 조사한다/대학 홈페이지 Focus, 2017.6.2) 특허는 사람이나 기존 CCTV 로봇이 진입하지 못하는 하수도 구간에 드론을 투입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정 교수는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드론 경쟁력 강화와 현재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특허에 착안했다. 그가 제안한 드론은 하수도 내 360도 영상 활용과 퇴적물 유무 판단, 유해가스 수치 파악 등이 가능하다. 그동안 정 교수는 '고속도로 2차사고 방지를 위한 드론', '생체정보 연동 드론 제어' 등 17건의 드론 관련 특허를 출원, 등록했다.

나를 이기고 진심으로
타인에게 다가갈 시대정신

세시봉

기호웅 (편집장)



현충일과 6.10민주항쟁 기념일이 지났다. 두 기념일의 모습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현충일 추념식에서 배우 이보영 씨가 낭독한 헌시는 우리나라의 쓰라린 상처의 역사에 다시금 치유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난 9일 교내에서 진행된 문과대 청년벽화 복원행사에 참여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발언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아픔을 보듬고 남은 자들의 책임을 무겁게 일깨웠다.

정치적 이슈들이 쟁점화 될 때, 좌우 대립은 우리나라 역사적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으로 여겨졌고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적 환멸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런 흐름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정책·공약과 가치·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 뉴스들은 지난 몇 년 전의 뉴스들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새로운 대통령의 등장과 이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들은 많은 국민들에게 기대를 갖게 한다. '헬조선'과 '수저계급론'이 당장 해소되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내일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주류에서 이탈한 '비주류'가 바로 그들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참 많은 이들의 희생의 결과물이었다. 침체의 시기엔 희생과 침묵을 강요했고, 부흥의 시기엔 역할과 대우를 무시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성이나 탄압받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제외하고, 재기할 수 없는 파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회적 안정과 복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와 학생들에게 정의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픔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개인은 여러 성장통과 사연을 거치며 오늘을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아픔에만 집중한 나머지 타인의 아픔을 무시하곤 한다. 인간의 본성이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류의 논리와 흐름만을 좇아 정신없이 달려왔다. 이에 따라 발생했던 수많은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들을 특수한 개인의 일이라 여기면 안 된다. 문제의 원인을 바로보고 고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며, 또 다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인간다움'이란, 결국 타인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2007년 폐간한,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통해서도 알려진 <라이프(LIFE)>의 모토는 '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말이라 생각한다. 주변에서부터 시작하자. 학내사안에서부터. 시간강사와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장애인 학생, 유학생 등 아직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쪽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해경 | 편집장 기호웅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턱령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기획

강의평가 낮은 실효성, 교수 교육 제도화로 해결 꾀한다

강의평가 피드백 개선 방안 점검

최명규 기자 gyumyeong@knu.ac.kr
양윤희 기자 yangyun0820@knu.ac.kr

이제는 익숙해진 매 학기 말 강의평가가 처음 도입된 것은 언제일까.

강의평가는 수업의 질 개선과 신규과목 개설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1997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21년의 세월 동안 강의평가는 방식에 있어서 온라인 평가 도입, 강의 평가 결과의 공개, 수시강의평가 도입과 폐지 등의 수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매 학기 강의평가는 약 8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매번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신문은 학생과 교·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강의평가에 대한 인식’에 관해 물었다. 결과, 응답한 학생의 ‘93.13%’가 현 강의평가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강사 역시 ‘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의 방향성’을 묻는 주관식 문항 답변을 통해 평가 문항의 구성, 불이익의 위주의 조치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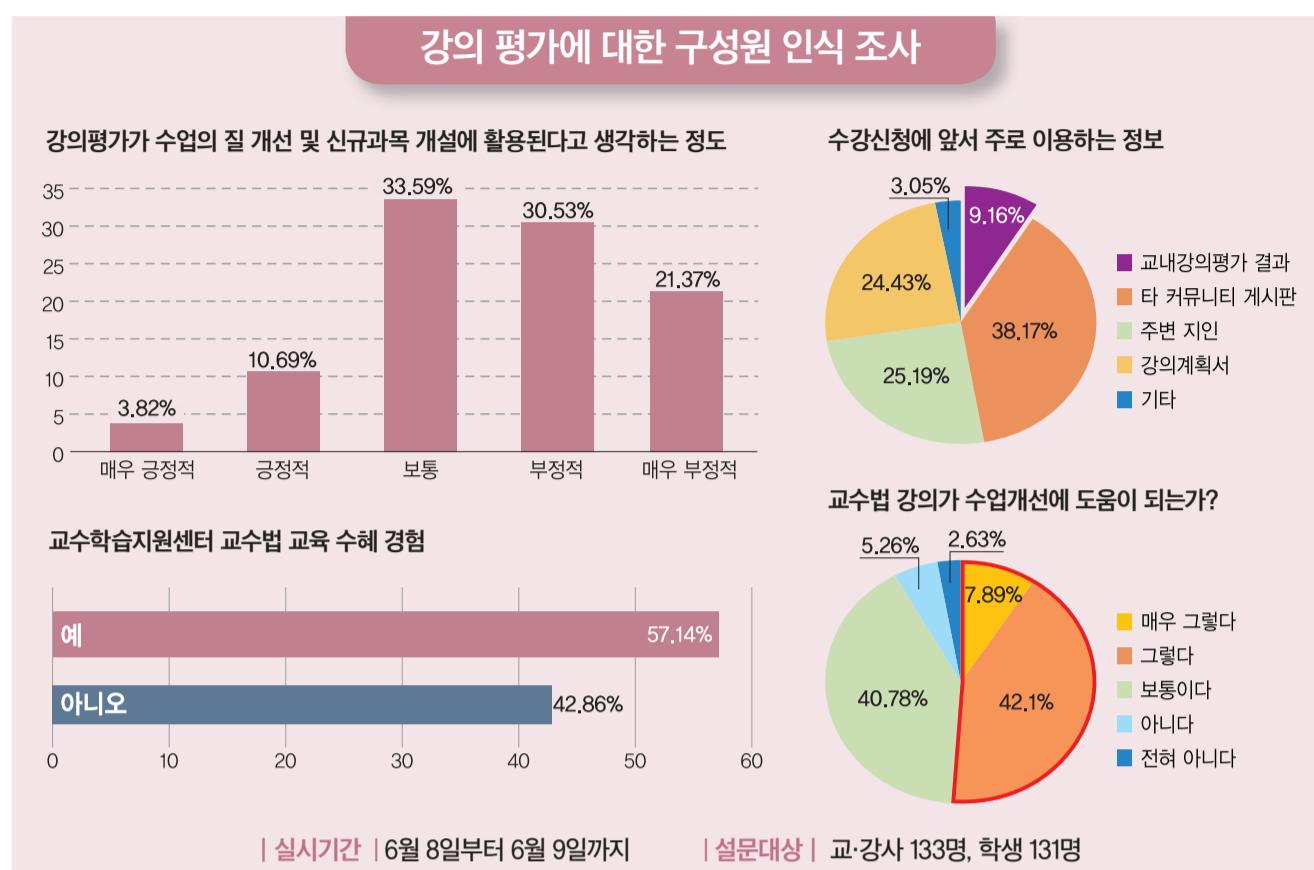
강의평가 어떻게 운영될까?

교무처 측에선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는 등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본래 도입된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강의평가에 대한 학내 구성원과 본부 차원의 인식이 공유됨에 따라 향후 개편 논의는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강의평가는 모든 강좌가 동일하게 ▲내용의 체계성 ▲평가의 공정성 ▲전반적 만족도 등을 묻는 8개의 객관식 필수 문항과 수업의 장·단점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개방형 선택 문항으로 구성돼있다. 해당 평가 결과는 추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강의평가 실시 여부에 따라 성적조회기간을 차등한다. 이번 학기의 경우 전체 학생은 7월 3일부터 7월 5일 사이 성적조회가 가능하다. 강의평가를 실시한 학생은 6월 15일부터 6월 29일 까지 보다 먼저 성적조회를 할 수 있다.

구성원이 지적하는 해결과제

강의평가의 결과는 교·강사들의 ▲수업



지속 여부 ▲기존과목 폐지 ▲수강신청 시 참고자료 ▲우수교수 선정 ▲교수업적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그러나 학생들은 ‘현행 강의평가가 수업의 질 개선과 신규과목 개설 활용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30.25%), 매우 부정적(20.17%)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긍정적(4.2%), 긍정적(10.92%)이라고 대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 중 절반 정도가 강의평가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측 역시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캠 교무과 조종구 계장은 “강의평가를 통한 피드백의 한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학생과 교원 간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무처는 교·강사와 학생 간의 피드백을 강화하기 위해 2014학년도에 ‘수시강의평가’를 도입한 바 있지만 참여율 저조로 인해 2015학년도에 폐지됐다.

학생들의 ‘불성실한 응답’은 학생과 교·강사 모두가 문제로 꼽았다. ‘교내 강의 평가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생의 49.58%가 ‘불성실한 응답’을 꼽았고, 교·강사 역시 주관식 답변을 통해 ‘학생들의

성의 없는 답변’을 문제 삼았다.

동국대는 2013년 강의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학생들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객관식 문항을 24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주관식 문항을 기준 1문항에서 2문항으로 늘렸다. 또한 ‘교원 선택가능 문항’을 12개에서 3개로 축소해 총 문항 수를 줄이면서 학생들의 진지한 참여를 유도했다.

전임교원에는 무력한 강의평가?

강의평가 결과가 시간강사와 전임교수의 처우에 미치는 영향에는 큰 차이가 있다. ‘직전학기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인 자는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없다’는 우리학교 시간강사규정 제 8조(위촉제한)에 따라 시간강사들은 강의평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전임교원의 경우 강의평가의 결과를 ‘교수업적 평가’ 300점 만점 중 ‘강의평가항목(40점)’으로 반영할 뿐이다.

국제캠 교무과 김병균 과장은 “전임교수는 기한의 정함이 없이 고용되는 교수로서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와 사회봉사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강제로 제재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 “강의평가가 교수업적 평가에 반영되므로 교수가 강의평가를 신경 쓰지 않을 순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학생 ‘결과에 따른 처우’에 집중 교원 ‘인사권보다 문항개선’

학생들은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상·별제도(34.45%)’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강의평가 결과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적절한 상별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간강사 측에선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주관식 문항을 통해 ‘강의평가 점수가 너무 낮은 경우 인사평가에 반영하되,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전임교원에게도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을 남겼다.

전임교원 측에선 인센티브 없이 불이익만 존재하는 현재 평가결과 반영 방식에 불만을 표했다. ‘강의평가에 대한 조치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일방적인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인사평가에 반영하기보다 수업의 질 개선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강사들은 문항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주관식 답변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평가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된다.

제19회『다독 및 독서노트 습관화하기』 공모

중앙도서관 연중기획 「책읽기의 즐거움, 내가 만난 세상」

제19회『다독 및 독서노트 습관화하기』 공모

중央도서관에서는 경희 구성원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도서관 소장 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19회 다독 및 노트 습관화하기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 개요

- 내용: 다독(도서대출) 및 독서노트 작성
- 대상: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재학생(학부, 대학원)
- 기간: 2017. 5. 1(월) ~ 11. 5.(일)

독서노트 작성

- 책을 읽고 간략하게 「독서노트」를 작성(100자 이상)
- 작성양식: 홈페이지로그인 → 읽은 책 도서검색 → 해당도서 독서노트 쓰기

발표

- 수상자 선정: 독서노트 작성 건수 및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
- 당첨자 발표: 2017. 11. 14.(화) 예정

시상

- 최우수상 1명(상품권 20만원)
- 우수상 6명(상품권 10만원)
- 입선 12명(상품권 5만원)

유의사항

- 응모작은 본인의 순수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이미 발표되거나 제출된 작품, 표절물, 모방작은 심사에서 제외됨
- 응모작 중 적합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된 독서노트는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지 않음
- 수상 후에도 표절 또는 모방 사실이 밝혀질 시 수상 취소와 상금을 회수 조치함
- 제출된 모든 원고의 저작권은 도서관에 귀속됨

문의사항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T. 031-201-3213)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2017학년도 후기 유엔평화학과 평화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국제기구 진출의 청경〉

- UN산하 및 관련기구인 UNITAR, WFUNA 인턴쉽 매년 18명 제공
- 졸업시 유엔평화학 석사학위 수여(Master of Peace Studies)
- 전 과목 영어로 강의
- 주중, 아간: 주말 수업 제공



- 모집과정: 석사과정
- 모집전공: 유엔평화학과(유엔평화전공)
- 수시모집기간: 2017년 4월 10일 ~ 2017년 7월 15일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 (접수완료 원서기준 수시면접 실시)
- 합격발표: 면접완료 대상자기준 합격자수시발표
- 온라인 원서접수: http://www.unpeace.kn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문의처
 - 이메일: gjp@kn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6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재 만들고 온라인 강의도 도입 … 변화 꾀하는 빅문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 ⑤

양윤주 기자 cyanide@knu.ac.kr

#.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는 제1의 중핵 ‘인간의 가치탐색’과 제2의 중핵 ‘우리가 사는 세계’에 이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도입된 제3의 중핵교과이다.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빅문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려사항들을 짚으며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의견 또한 학생에게 전달하고자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연재 기획을 마련했다. 지난 기사에서 ‘팀 티칭’방식과 ‘평가방식’, ‘강의 외부적 환경’등 빅문의 과거와 현재를 짚은데 이어 이번 기사에서는 ‘빅문의 미래’에 대해 짚고자 한다.

공식교재 도입 의지 모였으나

학기 초에 비해 ‘진전 없음’

이번 학기가 끝나감에 따라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은 현재 크고 작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확정되어 진행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교재도입’과 ‘온라인 강좌의 도입’이다. 연재기사에 짚었던 ‘팀 티칭’방식과 ‘평가방식’, ‘강의 외부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필요성이 대두된 ‘교재 도입’은 빅문의 미래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빅문 강의는 팀티칭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각 수업마다 가르치는 교수님도, 주제도 달라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힘들다보니 학생에게는 교재의 공백이 더 크게 다가왔다. 팀티칭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오른 각 수업 간 연결고리의 부재를 ‘교재 도입’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는 주교재와 부교재로 나누어 교재를 도입한다. 주교재는 학교차원에서, 부교재의 경우 빅문 교수 선에서 만들어지며 전체 흐름 파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주교재는 현재 빅문에서 사용하는 PPT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내용이 될 예정이다.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교재도입이 늦어진 것에 대해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 유정완 학장과 빅문의 기획에 참여한 권영균(물리학) 교수는 “원래 설계 때부터 교재를 도입하고자 했었다”며 “서울캠과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 하나의 통



〈연재 구성 및 내용〉



5화로 예정돼 있던 ‘빅문, ○○이 말한다’는 보다 나은 보도를 위해 해당 기사로 대체됐음을 알려드립니다.

합 교재를 만들려 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 됐다”고 말했다. 현재 교재 제작 상황에 관해 빅문 종괄을 맡고 있는 송재규(화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캠과 국제캠에서 원고를 수령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기 초 교제 제작 상황에 비해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캠에서 다음 학기 후반 혹은 내년 2018학년도 1학기부터 도입 예정에 있는 것은 ‘부교재’ 형식의 보조 자료다. 부교재의 내용과 진행현황에 대해 빅문 기획을 맡았던 권영균(물리학) 교수는 “이번 학기 첫 강의부터 출판사에서 와서 녹취를 하고 있는 중이다”며 “추후 녹취본과 강의 PPT, 교수님들이 피드백을 모아서 책을 만들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화 중 하나는 ‘온라인 강좌의

도입’이다. 이는 중핵과목으로서 유례없는 시도다. 빅문은 기존 중핵과의 차이 때문에 설계 때부터 온라인 강좌의 도입을 염두에 뒀다. 다만 다음 학기에 온라인 강좌가 바로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추진속도에 따라 도입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과학교과 특성 살리고

유학생 배려하기 위해

중핵교과 첫 온라인 강좌 도입

후마 유정완 학장과 빅문의 PD 송재규(화학과) 교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기존의 ‘인간의 가치탐색(인간탐)’과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와 달리 빅문이 온라인 강의의 도입을 체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

다. 먼저 과목 특성상 온라인강좌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이유다. 후마 유정완 학장은 “과학교과의 특성상 시대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며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는 사이버 상에서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온라인 강좌가 개발되면 대외적으로도 공개해 명품강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이유는 외국인 유학생의 보다 원활한 빅문 수강을 위해서다. 인가탑의 경우 이번 학기에 개설된 총 73개의 강좌 중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강좌가 6개이며 외국인 유학생 전용강좌가 1개, 영어로 이뤄진 강좌가 1개이다. 총 8개의 강좌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셈이다. 그러나 빅문은 외국인 유학생들도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양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이래 유학생 전용강좌가 개설된 바 없어 많은 유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권영균(물리학과) 교수는 “과학을 한국어로만 가르치다보니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며 “온라인 강좌를 도입하게 되어 영어 자막을 삽입해 유학생들에게 보다 원만한 강의 환경을 제공해 주고자 설계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온라인 강좌의 수강생 범위에 대해서는 빅문 PD 교수진과 대학본부 사이에 의견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빅문 PD 교수진 측은 “내국인의 경우 오프라인 강좌가 내국인 학생들에게 줄 학습적 측면의 이익이 더 크다”며 “외국인 유학생에게만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후마와 대학본부 측은 일부 내국인 학생에게도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자는 의견으로, “외국인 유학생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시험적으로 내국인 학생에게도 제공하고, 적정규모와 방식을 점차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학생만 vs 내국인도

온라인 강의 제공 범위는 미정

학생들 또한 온라인 강좌와 관련해 다양 한 의견을 피력했다. 조유경(언론정보학 2016) 양은 “오프라인으로 들어야 더 집중할 수 있고 수업시간이 정해져 있어 오히려 편하다”라며 “표면적인 지식만 전달하는 강의가 아닌 만큼 유학생만 온라인 강의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장예지(아동가족학 2016) 양은 “온라인 강좌 수강생들은 같은 내용을 공부하고 그 안에서 시험문제가 출제되어 형평성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희진(언론정보학 2016) 양 또한 “온라인 강좌가 도입된다면 수강신청도 원활해 질 것이고 온라인 강좌 수강생만큼 오프라인 강좌의 인원이 감소해 한 강좌 당 인원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빅문은 그 등장만으로도 아례적이며 새로운 시도였다. 타 중핵과는 다른 운영방식, 강의 환경 등 많은 부분에서 빅문은 낯설 수밖에 없다. 낯설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낯섦을 학생들과의 소통 없이 지속한다면 혼란을 키울 뿐이다. 앞으로의 빅문은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신중히 접근해 후마의 새로운 도약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안내

1. 신청대상

재학생 및 복학생, 신·편입학생
※ 2017-1학기 신입생은 2학기에는 재학생으로 신청

2. 1학기 학생 신청기간

2017.05.17.(수) 09:00 ~ 06.14.(수) 18:00
※ 일·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마감일 제외)
※ 재학생은 반드시 1학기에 신청할 것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학기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3.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017.05.17.(수) 09:00 ~ 06.20.(화) 18:00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및 서류제출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의무 홈페이지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신청현황 → 제출서류에서
제출서류 확인 가능

5.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 상담센터 1599-2000

2017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 장학사업 1차 신청안내

1. 장학명

국가교육근로장학

2. 장학목적

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나. 직업체험 기회제공으로 취업역량 제공

3. 주요내용

매월 근로시간에 따른 장학금 지급
가. 교내근로: 시간당 8,000원 / 교외근로: 시간당 9,500원
나.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20시간(학기종), 1학기 450시간 내외 진행

4. 신청기간

2017.05.17.(수) 09:00 ~ 06.14.(수) 18:00 까지

※ 한국장학재단 학생 통합신청 일정과 동일

5.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6. 안내사항

가. 2017-2학기 1학기 신청기간에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해당학기 모든 근로 유형(학교 내 교육근로, 지역사회 교육근로, 현장교육근로 중 교육활동지원 분야) 참여 가능
※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및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제외

나. 2017-2학기 1학기 신청기간 동안 2017-1학기 장애대학생 도우미 유형 및 취업연계 유형 학생신청은 불가능하며, 동 신청기간 종료 후 재개

7.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대표번호 1599-2000

2017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재학생들은 ‘강의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평가 결과는 수업의 질 개선과 신규과목 개설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1. 기간 : 2017.06.01(목) ~ 06.27(화)

2. 대상 : 서울·국제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3. 대상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강좌

4. 성적 열람 및 공시기간 : 2017.07.03(월) ~ 07.05(수)

5. 강의평가 실시 여부에 따른 성적 조회기간

■ 강의평가 실시 학생 : 2017.06.15(목) ~ 06.29(목), (단, 06.25 ~ 06.27 제외)

※ 성적 열람이 원로된 강좌에 한함

■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 : 2017.07.03(월) ~ 07.05(수)

6. 강의평가 실시방법

1)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수업/성적/상담 → 수업 → 강의평가 클릭

2)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할 강좌를 클릭

3) 회면 상단의 답변방법 설명에 따라 설문문항을 모두 답변한 후, 강좌에 대한 개방형 질문(자유의견)을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 단추 클릭(저장 후 수정불가)

4) 강좌목록 화면에서 평가를 마친 과목이 [미실시]에서 [실시]로 변경된 것 확인

5) 실시한 과목의 평가내용을 다시 보고 싶을 경우에는 강좌를 클릭하여 조회

6) 목록에 있는 다른 강좌들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강의평가 실시

7)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모든 강좌가 [실시]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확인 하단의 [로그아웃]을 클릭하여 강의평가 종료

8) 강의평가를 잘못 실시한 경우 소속 단과대 행정실의 강의평가 담당자에게 문의

※ 강의평가는 공정성을 위하여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보도

사과·소명에도 새터 후폭풍 여전, “학생회장단 사퇴하라” 요구도

문화대 새터 관련 논란

류제원 기자 jennyoo95@knu.ac.kr

【서울】 지난달 31일, 올해 초 논란이 된 문과대학의 새내기새로배움터(새터)에 대해 문과대학 학생회가 소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7 새터 모든 것을 말씀 드립니다’란 이름의 대담회에서 문과대학 학생회 김기범(국어국문학 2015) 부회장이 나서 새터 결산내역을 공개하는 등 공개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문과대학운영위원회 몇몇은 여전히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문과대 새터 이후 우리학교 페이스북 익명제보 페이지 ‘경희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경대전)’에는 ‘경희대학교 49대 문과대학 학생회장단을 규탄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온·오프라인 상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로는 적자를 비롯해 일반 투숙객 난동, 중앙규찰대 운영 미숙, 그리고 침구류 부족 등이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새터 문제는 전적으로 학생회장단을 비롯해 중앙기획단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라며 “불편을 겪은 문과대 새터 참가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논란이 발생하고 약 4개월 만이다.

가장 문제가 된 ‘새터 적자’ 건은 예산 외 초과지출액 425만 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과대학 학생회는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담회에서 공개된 ‘2017 새내기 새로배움터 보고서용 종결산’ 자료에 ‘적자’로 표기된 초과지출액 대부분은 교비에서 지출됐다. 문과대학 학생회는 교비로 주가지출 된 335만 원에 대해선 사비로 행정실 측에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치회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문과대 대담회에서 김기범 부회장이 논란에 해명하고 있다. (사진 = 류제원 기자)

대학가 ‘악습’ 졸업반지, 간호대가 먼저 없앤다

간호대 졸업반지 폐지

류제원 기자 jennyoo95@knu.ac.kr

【서울】 간호과학대학 48대 학생회는 악습으로 불려온 졸업반지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졸업생부터는 졸업반지를 받지 않고 재학생들은 그동안 지출해야 했던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간호학과의 졸업반지는 선후배간 위계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지난 4월 6일 우리 학교 익명 커뮤니티인 ‘경희대학교 대나무숲(대숲)’에 ‘단돈 3만원에 제 양심을 팔 수 없습니다’라며 졸업반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간호학과 2학년이라 밝힌 작성자는 “더 이상 이런 악습을 두고 볼 수 없어 글을 썼다”며 “액수와 상관없이 정당한 절차와 설명 없이 원하지 않는 학생의 돈을 사용한다면 재산권 침해와 부당하고 부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이런 문화가 아직도 있었나?”는 댓글을 달았고, 졸업반지는 학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

비난의 대상 졸업반지

“재산권 침해, 부당하다”

간호학과 학생회 진수현(간호학 2015) 회장은 “간호학과의 졸업반지는 누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른 채 이십여 년째 전해왔다”고 설명하며 “이전부터 졸업반지를 폐지하자는 얘기는 있었지만 여론이 갈리는 등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간호학과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그랬다. 4학년을 대상으로 졸업반지 수령 찬반여부를 묻자 응답한 68명 중 53명이 졸업반지를 원해 간호학과는 올해도 졸업반지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다 졸업반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학내에 다시금 형성되면서 현 학생회장단을 비롯해 학과장, 학생주임, 행정실장 등이 모여 졸업반지 폐지를 결정했다. 진 회장은 “졸업반지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된 것이니만큼 올해는 해결을 보자는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폐지 결정 후에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간호대학 학생회 정지섭(왼쪽) 봉사국장과 진수현(오른쪽) 회장

(사진 = 류제원 기자)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재학생이 지출해 온 돈의 환불 방안이었다. 매년 간호 학과 1, 2, 3학년 재학생은 학년별로 각각 35,000원, 30,000원, 30,000원을 지불한다. 이 돈을 모아 해당년도 졸업생 반지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한 학년이 80~90명에 달하기 때문에 각 학생이 그동안 지불한 돈을 돌려주려면 1,500여 만 원이 필요한 셈이다.

학년 높을수록 폐지 반대

공금으로 손해 보전하기로

학생회가 내놓은 대안은 학생들이 얼마간의 손해를 떠안는 방식이다. 학과 내 5월 초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1학년의 95.8%, 2학년의 70.7%, 3학년의 63.2%, 4학년의 56.1%가 손해를 전제로 한 졸업반지 폐지에 찬성했다. 진 회장은 이에 대해 “학년이 높을수록 그동안 낸 금액이 많아 보상심리가 나타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반지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정지섭(간호학 2014) 봉사국장은 “설문조사 결과 개인당 손해액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학생회비에서 1인당 5,000원을 지원하

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올해, 내년도 축제 수익금 등도 사용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졸업을 앞둔 4학년은 55,000원을 돌려받는다. 1, 2학년의 경우 5월에 25,000원 씩 반환이 완료됐다. 3학년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내년에 25,000원을 돌려받는다. 진 회장은 “3학년에게 지급할 금액은 내년 축제 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2, 3, 4학년의 경우 40,000원, 1학년은 10,000원을 손해 보는 셈이다.

신지우(간호학 2016) 양은 “우리가 손해를 본 건 맞지만 지금이라도 폐지된 게 기쁘다”며 “우리 과의 발전을 위해 기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2학년 학생은 “지금까지 이 전통을 없애지 않고 후배들에게 폐만 끼친 선배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특히 대숲에 졸업반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을 때 졸업반지를 두둔하던 댓글들이 오히려 많았다”라며 비난했다.

끝으로 진 회장은 “간호학과 외에도 비슷한 사례를 가진 과가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간호대의 졸업반지 폐지가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접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2017. 7. 3.(월) ~ 8. 11.(금) ◆ 접수기간: 2017. 6. 12.(월) ~ 2017. 6. 30.(금)

Level Test

◆ 영어회화: 6. 27(화), 6. 28(수) 17:30 ◆ 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회화: 6. 27(화) 17:15

강의시간표

영어회화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19:20 (월, 수, 목)		
	레벨	Beginning / Intermediate / High Intermediate / Advanced	Beginning / Intermediate / Advanced		
영어 레벨업	시간		150,000원	오후반 14:00~16:00 (화)	오후반 18:00~20:00 (화)
	레벨	Academic Writing Workshop		Business English Skills Series	TED Talk
	수강료		120,000원		90,000원
일본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1 / 초급2	중급1 / 중급2 / 고급	
	수강료		150,000원		
중국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 초급2 / 초급3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2 / 초급3 / 중급2	초급1 / 중급1 / 고급	
	수강료		150,000원		
스페인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오전반 07:45~08:45 (월, 수)	오후반 09:00~10:30 (화, 목)	오후반 17:30~19:00 (화, 목)	오후반 09:00~10:30 (월, 수)
	레벨	초급1	초급2	초급1	중급1
	수강료	90,000원		120,000원	120,000원
프랑스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레벨		초급1	초급3	
	수강료		150,000원		
독일어	시간		오후반 17:30~18:50 (월, 수)	오후반 19:00~20:20 (월, 수)	오후반 18:30~19:5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초급3
	수강료		120,000원		
이탈리아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수강료		150,000원		

Tel. 02) 961-0081~82 http://www.iee.ac.kr

LEAP Program

가. 접수기간: 1차-2017. 6. 1.(목) ~ 6. 21.(수) / 2차-2017. 6. 1.(목) ~ 7. 19.(수)
나. 강의기간: 1차-2017. 6. 26.(월) ~ 7. 20.(목), 4주 / 2차-2017. 7. 24.(월) ~ 8. 18.(금), 4주

다. 프로그램 일정

	1차	2차
LEVEL TEST	2017. 6. 21.(수) 17:00	2017. 7. 19.(수) 17:00
입교식	2017. 6. 26.(월) 10:00	2017. 7. 24.(월) 10:00
Game Day	2017. 7. 6.(목)	2017. 8. 3.(목)
수료식	2017. 7. 20.(목) 13:00	2017. 8. 18.(금) 13:00
모집인원	한 반 정원 15명	
LEAP	초·중급 영어 구사자	
LEAP Advanced	중·고급 영어 구사자	
수강료	Half-Day Course(오전+오후): 330,000원 Full-Day Course(오전+오후): 595,000원	

※ 1,2차 연속 수강 시: 국제교육원 외국어강좌 장학 혜택 부여

라. 강의시간표

강좌시간	LEAP	LEAP Advanced
10:00 ~ 11:20	English Conversation	Discussion & Debate
11:30 ~ 12:50	Reading the World	Book Club
14:00 ~ 15:20	Screen English	Academic Writing
15:30 ~ 16:50	Practical Writing	Talk Like Ted

※ 월~목(주 4회) / 1일 6시간

비. 특전

- 경희대학교 총장 명의 영문 수료
- Full-Day Course 수강 시, 성적, 출석 80% 이상일 경우, 영어/대학영어 면제 (서울캠퍼스 학생에만 해당)

교육적폐 청산과 대학의 미래

교수 칼럼



이기라
후마니타스칼리지

검찰개혁, 국방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쌓이고 지난 정부 9년 동안 강화된 적폐 청산에 대한 기대가 크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과 장차 관급 인사를 통해 적폐청산과 개혁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누리과정 재정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기로 한 것 외에 별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으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취임 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혹시 교육개혁, 특히 대학개혁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린 것은 아닌지 조금 씩 염려가 되기 시작한다. 대선 공약에도 고교 무상교육 및 서열화 해소, 반값등록금, 공공기숙사 확대 등 중등교육과 교육복지와 관련된 공약은 많이 보였지만, 교육적폐 청산과 대학개혁에 관한 내용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교육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면서도 질은 별로 좋지 않은 상품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교육 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주고 교육을 질을 높이기는커녕 돈을 매개로 대학들을 줄 세우기에 바빴다. 교육부 관료들은 대학 관련 정책, 재정, 평가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해왔다. 특히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을 통해서 대학들을 자신들의 권력에 예속시켰다. 학생 평가, 졸업생 취업률, 입학정원 축소, 교원연구업적 등은 거의 모든 사업에 기본적인 평가지표로 사용된다. 대학들은 재정지원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늘 이런 평가지표들을 ‘관리’해야 한다.

각각의 평가지표들이 교육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왔는지 짚어보자. 우선 학생 평가는 대학들



지난해 10월 19일 이화여대 교수들과 재학생들이 본관 앞에서 학사행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집회현장 (사진=중앙일보)

이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A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 평가 지표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의 경우 상위 30% 미만 성적의 학생에게는 B+ 이상의 학점 임력 불가. 전 세계 어느 교육기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교적일 뿐만 아니라 야만적이기까지 한 학생 평가제도이다. 학점별로 더 촘촘하게 비율을 정해놓은 대학들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이미 초등학교부터 경쟁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이 한 가지 상대적 기준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런 평가방식 하에서 연대와 협력이라는 시민적 가치를 가르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졸업생 취업률과 입학정원 축소 지표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취업률과 정원축소는 대학을 산업에 필요한 인력만을 배출해야 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특히 취업률이 핵심적인 평가지표였던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은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정원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고, 기상천외한 이름의 ‘융복합’ 학과들을 탄생시켰다.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융합보안공학과, 스

마트운행체공학과 등등.

교원연구업적은 소속 교수들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나 해외 SCI급 저널에 얼마나 많은 연구논문을 실었는가가 핵심이다. 저서나 역서는 거의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연구논문만 해당된다. 이 평가지표를 올리기 위해 대학들은 채용기준에서부터 승진자격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논문을 요구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1년에 두 세 편의 논문을 발표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결과는 교육의 포기,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연구의 포기로 나타났다. 또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은 기존 논문중심의 교원업적평가에서 산학협력 실적을 포함시켰다. 이후 교수들은 각종 연구용역 수주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흐름에서 일부 교수들은 ‘4대강 사업’과 같은 국가재난적 정책추진을 정당화시켜주었다.

지난 3월 9일 교육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기 바로 전날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서둘러 발표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일정을 밀어붙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당시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슈화가 되었지만 입학정원 축소와 통폐합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은 이미 2주기에 접어든 사업이라 그런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평가지표에 따라 대학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대학 구조개혁에도 당연히 입학정원 축소뿐만 아니라 학생 평가와 졸업생 취업률이 평가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대학의 문제들을 더 열거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우리의 감각이 무뎌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교육부가 나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왜 등록금 부담은 줄지 않고 대형 강의는 늘어나는 걸까?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전임 교수들의 처우는 왜 조도 나아지지 않는 걸까? 여기저기에서 적폐를 이야기하고 청산을 외치는데, 대학정책과 관련된 교육부의 적폐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한 마디 보태고 싶다. 교육적폐 청산은 절대 미루면 안 된다고 말이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실마리가 이화여대의 정유라 부정입학과 ‘미래라이프대학’에 있었음을 기억하자.

참여마당

남효형

(정보전자신소재공학 2013)



망설임을 넘어 자유로운 세상 위해 필요한 것

평소에 상대방과 각자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기회가 적기도 하지만 막상 자리가 마련돼도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벽을 친다. 끈질기게 서로의 의견을 말하는 토론은 내가 몰랐거나 생각치 못했던 다양한 의견과 충돌하는 과정이다. 대학생에게 권유되는 다양한 경험과 소통에 부합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왜 실생활에서 유리해 있을까? 매일 많은 사람과 말을 하지만 내 생각에 대해 말하는 건 몇 마디 되지 않는다. 일상적인 소소한 대화는 편하게 할 수 있지만 토론하듯 자신의 주장을 꺼내며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한다. 그러한 자리가 있더라도 분위기가 어색해지거나 다른 주제로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토론은 수업에서 교수가 요구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수업과정에 가깝고, 어떤 점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토론을 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우연히 독서소모임에 참여하게 돼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특별한 스페셜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야기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자유롭게 말하고 듣는 과정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 어느덧 3년이 됬다.

토론이 좋아 시작한 독서소모임 삶의 태도를 정비하는 힘

독서토론의 가장 좋은 점은 나와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적인 비난 없이 서로의 입장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접목하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내 편견을 부수고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발언하는 것은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나의 생각을 직접 말하면서 문장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들을 때도 보다 논점을 이해하기 수월해진다. 여러 주제와 이슈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생기는 것도 큰 도움이 됐다. 죽음에 대한 태도, 사랑의 가치,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등 일상생활이나 혼자 있을 땐 깊게 생각할 수 없는 주제들에 대해 내 의견을 만들고 말하는 것은 삶에 대한 태도를 정비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배경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준비라는 마중물들을 통해서 서로의 말에 집중하고 반박하며 질문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그 가벼운 시작으로 독서토론이 재격이라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 토론에 기준점이 되는 텍스트를 공유하고 주제를 정하면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책만큼 다양한 영역의 토론도 가능하다.

그동안 많은 사람과 다양한 생각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서토론 활동을 할지 말지 주저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 좀 더 많은 토론의 장이 생기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대화가 많아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나아가 서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데에 거부감이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2017학년도 2학기 수강희망과목당기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개설 교과목을 대상으로 수강희망과목당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수강희망과목당기?

가. 제도개요

• 차기학기()에 개설되는 강좌 중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를 소정기간 중 미리 선택해 놓아 실제 수강신청 시 수강희망과목당기()에 담아놓은 강좌에 대해 신속하게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나. 희망과목당기 유형

• 수강희망과목당기는 “희망과목당기”와 “예비과목당기”로 구분하여 실시됨

1) 희망과목당기

• 본인의 수강희망과목당기에서 실제 수강신청 조건과 유사하게 강좌 선택 가능

• 동일 과목명의 강좌는 중복하여 선택되지 않음

• 현황은 전공별 강좌 개설과 여석 배정을 위한 수강수요 기초자료로 활용

2) 예비과목당기

• 희망과목당기 외로 10과목까지 선택 가능

• 동일 과목명 강좌의 중복 선택 가능

• 수강수요 충정과는 관계없이 단순 수강신청 편의 제공용

※ 희망과목당기 또는 예비과목당기로 담아놓은 강좌는 실제 수강신청하는 방법은 두 담당기 방식으로 동일하나, 수강수요 피작용을 위해서 학생은 실제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는 희망과목당기()에 담아주기를 바랍니다.

3) 실시기간

• 1차: 2017.06.19(월) 10:00 ~ 06.29(목) 17:00

• 2차: 2017.07.19(수) 10:00 ~ 07.21(금) 17:00

3) 참여대상: 서울·국제 캠퍼스 재학생·본부에 전휴학생

※ 휴학생 중 2017학년도 2학기()에 복학을 예정하고 있는 학생은 강좌에 대한 수요예측을 위해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 학사지원과

2017년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서울특별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일반 상환학자금, 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함을 알려드리오니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 모두 포함

■ 서울지역 대학생

• 현재 주민등록본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대학(교)에 재학 중인자(휴학생 포함)

• 현재 주민등록본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대학(교)에서 졸업한 미취업 청년(졸업한 후 2년까지)

● 사업명: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에 대출 신청한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로부터 8분위에 해당되는 서울지역 대학생

● 지원범위: 대출 당시 소득분위기준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	소득 8분위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일반 상환학자금	전액 지원	차등 지원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
취업 후 상환학자금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

※ 정부지원이 있을 경우 정부지원금 공제후 지원

※ 차등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당해 연도 예산법원에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결로 정함

● 지원내용: 현재 재학(휴학) 또는 졸업한 대학교에서 대출받은 원자금에 대하여 지원

● 신청조건: 서울시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자에 한함

● 신청기간: '17.6.1(목) 09:00 ~ '17.6.30(금) 18:00

● 접수처: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 대상자: '17년 10월 이후 예정임

● 이자지원 방법: 대학생 개인별 대출 원자금 상환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자금 상환으로 개인별 입금 조치 있음

서울특별시

인터뷰

한 그릇 음식에 담기는 짧은 농부의 열정과 정성

농사꾼 한상원, 노보원 동문 인터뷰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 대형마트에 밀려 손님의 발길이 끊겼던 강원도 춘천시 육립고개 상권이 짧은 창업가들의 손길로 온기를 되찾았다. 생활한 복, 꽃 막걸리, 빵집 등 여러 가게 중 눈길을 끄는 이색적인 간판, ‘어쩌다 농부’가 눈에 들어온다. 짧은 농부 3명이 지난해 11월 개업한 이곳은 손수 재배한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식당으로, ‘건강한 음식’ 이미지로 많은 손님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어쩌다 농부의 대표인 한상연(유전공학 2008) 동문과 노보원(유전공학 2012) 동문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이들은 정말 ‘어쩌다’ 농부가 됐다. 여느 대학생처럼 학업과 잣은 술자리로 인해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평소 먹을 것을 좋아하던 한 동문은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좋은 먹거리를 통해 건강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귀농 하신 부모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농지가 떠올랐고, 직접 농사를 짓게 됐다.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직접 채소를 재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라는 한 동문은 “농사를 짓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금세 지쳐 그만 포기할 줄 아셨는지 제 뜻대로 해보라 하셨어요”라며 농사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말했다. 그렇게 뜻이 맞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세 명이서 ‘불꽃 농부’라는 이름으로 농사일을 시작했다.

‘어쩌다’ 신선 식재료 찾게 돼

초짜 농사꾼의 길로

부모님의 예상을 배신하고 한 동문은 농사일에 매달렸다. 이왕 ‘음식다운 음식’을 원한 김에 정말로 자연에 가까운 농산물을 재배하고 싶었다. 유전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농약이나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친환경 농법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친환경 농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뒤져보고 관련 서적을 찾아보며 이론을 익혔고 직접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를 방문해 실질적인 농사법을 익히기도 했다.

부모님이 귀농 후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한 동문 자신은 농사일에 관심이 없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지식은 배웠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었다. “이렇게 고생해서 농



춘천시에 위치한 ‘어쩌다 농부’ 매장(위쪽) 한상연 동문과 노보원 동문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왼쪽) 이들은 직접 제철 농작물을 재배한다

사를 지었는데 첫 해에는 결과물이 좋지는 않았어요. 당근을 심었는데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50여 종을 심었는데 잡초가 가득 자란 밭을 만들었어요” 한 동문은 지난 고생을 담담히 말했다.

땅은 노력에 보답했다.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작물을 얻게 됐다. 수확물을 동네 주민들과 아는 지인을 통해 조금씩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다 서울 DDP에서 열리는 농산물 시장을 통해 자식과도 같은 농산물을 처음 일반 소비자에게 선보였다.

한 동문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일반 농작물보다 크기가 작지만 맛은 더욱 좋기에 소비자의 마음을 이끈 거

같아요”라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이때쯤 농산물 판매만 담당하던 노보원 동문도 농사 일에 동참하게 됐다. 소비자들에게 농작물에 대한 정확한 생산 과정과 농부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다.

잡초만 가득히 만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엿한 농부이자 요리사

춘천에 자리한 ‘어쩌다 농부’는 자신의 농산물을 더 많은 이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차린 식당이다. 인터넷과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직거래 장터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했

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직접 마주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한 동문은 조금 더 색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농산물을 사람들에게 맛보이고 싶었고, 소비자와 직접 마주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면서도 도심과 가까운 곳을 모색 하던 중 춘천시에서 구도심 부활을 위해 짧은 창업가들에게 창업 지원을 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춘천 육립고개에 가게를 내게 됐다. 제철 채소를 이용해 요리를 선보이기 때문에 메뉴는 계절마다 달라진다. 가령 지난겨울에는 들깨수제비를, 올 봄에는 달래된장덮밥을 선보였다. 좌석 16개, 아담한 가게에 주문과 함께 요

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재료부터 요리까지 듬뿍 담긴 정성을 맛보기 위해 손님이 줄을 잇는다. 메뉴 개발은 주로 노동문이 맡아서 한다.

“전문적인 요리사는 아니지만 예전부터 먹는 걸 좋아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요리와도 가까웠어요. 제철 채소를 신선하고 건강하게 제공하기 위해 채식 요리책을 주로 참고하고 여러 음식을 직접 해 먹다 보면 웬찮은 요리가 탄생하게 돼요” 노동문에게서 요리에 대한 열정을 염볼 수 있었다.

힘든 점은 없냐고 묻는 질문에 한 동문은 심리적인 것이, 노동문은 체력적인 부분이 힘들다고 말한다. 한 동문은 “아무래도 수입이 좋지 못했을 때는 안정적인 직장을 택한 친구들을 보며 부러웠어요”라고 말했다.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인지 식당 일과 농사일을 병행하는 일이 쉽지 않은 않아요”라는 노동문은 “체력적으로 힘든 것이 저에게는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라고 말했다.

이런 이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손님의 ‘빈 접시’다. 손님이 맛있게 비우고 간 빈 접시를 바라보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간도, 식재료를 얻기 위해 휴식시간 틈틈이 밭으로 달려가 농사일을 하던 시간도 모두 보상 받는 기분이다. 이들의 순수한 열정은 수많은 블로그를 통해 퍼져나가고 진심을 맛보기 위한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들의 꿈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신들과 같은 짧은 농부와의 소통을 통해 친환경 농법을 더욱 널리 전시켜나가고 싶기도 하다. ‘어쩌다 농부’가 됐지만, 누구보다 큰 열정으로 농사일에 매진하는 이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 된다.



세계 최초로 융복합 대학 admission.dgist.ac.kr

DGIST

2018학년도 봄학기 대학원 학생모집

전형일정

구 분	1차	2차	3차
원서접수	6.29(목)~7.13(목)	10.12(목)~10.26(목)	12.14(목)~12.28(목)
면접 대상자 발표	7.27(목)	11.9(목)	'18.1.11(목)
면접 평가	8.7(월)~8.14(월)	11.13(월)~11.21(화)	'18.1.15(월)~1.22(월)
합격자 발표	8.28(월)	12.4(월)	'18.2.9(금)

전공별 모집과정

신물질과학전공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공의 평가기준에 따라 통합과정이 아닌 석사과정으로 입학 가능
로봇공학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 석사과정 학생은 1학기의 수학과정을 이수한 후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 가능
뉴바이오로지전공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 홈페이지 admission.dgist.ac.kr

장학혜택 및 특전

납입금 면제	· 전원 국비장학생 선발
교육 및 연구장려금 지원	· 박사과정 : 13,680,000원 + @/년 · 석사과정 : 7,440,000원 + @/년
DPP 선발 (DGIST Presidential Fellowship)	· 특별장학금 : 3,000,000원/학기 · 연구지원비 : 10,000,000원 이내 · 해외대학 연수비 : 16,584,000원 이내
기숙사 입주	· 전원 입주 가능
해외연수 실시	· 전공별 해외 유수대학 연수 지원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ETH Zurich, UC Berkeley, Virginia 대학) · 국제 심포지엄 참가 지원 등
전문연구원 편입	· 박사과정 대상 100% 편입 가능
국가 거대연구과제 참여	· DGIST 융합연구원 소속 11개 센터 및 연구실 · 한국뇌연구원 · 기초과학연구원(IBS) 식물노화수명연구단

서울지역 입학설명회

6.23(금) 13:00~18:00
엘타워 B1층 루비홀(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 기관 및 입학전형 소개
- 전공별 간담회 등

전공 오픈캡

9.23(토) 12:00~17:00
DGIST 컨설리언스홀 L29(대강당) 및 각 전공별 장소

- DGIST 무료 셔틀버스 운행
- 기관 및 입학전형 소개, 전공 소개, Lab Tour 등
- 시외 교통비 지급 및 간단한 증식, 기념품 제공

수도권 면담형 설명회

매월 둘째 주 금曜일
DGIST 서울총보센터(서울 중구 무교로 32 혜령빌딩 703호)

- 전공별 교수와의 소규모 면담 운영(약 1시간 50분 진행)
- 사전신청 필수(신청자가 없는 전공은 설명회 미실시)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DGIST 입학홈페이지 참조

온라인 양식 제출

admission@dgist.ac.kr으로 송부

www.dgist.ac.kr/virtualtour